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6월 처리"·여 "충성 경쟁"

야당 단독 입법청문회 뒤 처리
다음달 초 본회의 예고
국힘 "독소조항이 더 독해졌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공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상 기록 보존 기간(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협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편치한 거짓과 기만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상인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4파전 구도로 짜여졌다. 왼쪽부터 이날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 원장. /연합뉴스

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21대 국회에 제출했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태도가 '욕박 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당권 주자들 출마선언 ... 당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한데 이어 당내 당권주자들도 23일 출마선언을 하는 등 당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책임지겠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

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나 의원은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정취한 정권교체였으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스스로를 '이길 줄 아는 사람' '통합 리더십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같은 당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말아야 하고, 민심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당심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당 대표는 우리 당에서 꼭 성장해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당원들과 함께 겪은 분이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세훈 36%·조국 35%·이재명 33%·한동훈 31%

갤럽, 정치인 호감도 조사

홍준표 30%·이준석 27%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계 인사 호감도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3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7%였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각각 56%, 홍준표 시장이 37% 호감도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호감을 표한 비율이 각각 64%, 58%였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호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의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 61%, 홍준표 시장 60%, 이재명 대표·한동훈 전 위원장 모두 58%, 조국 대표 54%, 오세훈 시장 50%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1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연합뉴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다양한 실력으로 동부교육
모두의 꿈을 키우는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